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8호 [부제 제25401호] 주제 105 (2016)년 9월 14일 (수요일)

전 당, 전 군, 전 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당당한 핵강국의 전열에서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자

주체조선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한 핵탄두폭발시험 성공을 경축하는 평양시군민련환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천만근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총공격, 총돌격하고있는 장엄한 시기에 우리 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단행된 핵탄두폭발시험의 대성공은 온 나라를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휩싸이게 하고있다.

나리의 자주권과 민족민대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이번 핵탄두폭발시험성공은 당당한 핵강국의 전열에서 조국의 안전과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해가는 주체조선의 민족사적대승리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끝없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세계를 진감시 오날의 후대사명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총폭발시키며 올해 국방공업부문에서 다발적으로, 면발적으로 올려쳐지고있는 자랑찬 승전포상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강국건설의열을 받들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도전관철에 천만근민을 힘있게 이끌어가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영도가 인아를 빛나는 결실이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의 발악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처한 단호하고도 정경당당한 자위적조지인 핵탄두폭발시험성공을 열렬히 축하하며 최강의 핵억제력을 다지고자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 혁명적열의를 넘쳐있다.

주체조선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한 핵탄두폭발시험성공을 경축하는 평양시군민련환대회 13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10만여명의 작제총 군중들이 모인 대회장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고 빛내어주시는 조국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세계안방에 더 높이 떨치기 위한 천만근민의 영웅적투쟁을 승리로 향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찬사와 감사의 정으로 뜨겁게 설레이고있었다.

참가자들의 열광마디에는 핵탄두폭발시험에서 성공한 그 기세로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 핵공성정의 맹세, 당당한 핵보유국의 품인된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영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핵탄두폭발시험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 《모두다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로!》,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 《모두다 당중앙위원회 2013

년 3월전원회의 결정관철로!》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물들이 세워져있었다. 방정준비관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서자!》,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강국인 나라를 김정은동지 따라 단행된 핵탄두폭발시험을 위한 핵탄두폭발시험을 성파적으로 단행한 핵무기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번영과 안전을 담보하고는 후대사이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와 김정일강국으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천만근민에게 최후승리의 신심과 작정을 안겨준 민족사적대승리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역사의 시련과 원수들의 도전속에서도 억척같이 다지고다져온 주체조선의 막강한 국력과 융속된 힘을 총폭발시키며 국방공업부문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사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와 애국헌신이 인아를 자랑한 승리라 하고 축하하였다.

그들은 역사의 시련과 원수들의 도전속에서도 억척같이 다지고다져온 주체조선의 막강한 국력과 융속된 힘을 총폭발시키며 국방공업부문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사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와 애국헌신이 인아를 자랑한 승리라 하고 축하하였다.

핵탄두폭발시험의 성공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주적신념과 핵무의 담력을 다시금 가슴부듯이 새겨안았으며 백두산대국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위업을 총지하게 받들어나갈 철석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세계의자원의 악랄한 적대시정책과 정경책동은 오직 초강대국과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타격으로 맞서야 한다는것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총정의 200일전투의 승전포상을 높이 올리고 있는 안변군 천삼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 진행

수십년간의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뼈에 새긴 철리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의 믿을지한 무비대, 척후대, 익속부대인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웅청년의 승리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편승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감으로써 새로운 영웅청년선화장들의 만세소리가 끊이지 이어지게 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학기술강국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차적목표로 내세우는 당의 의도된 심정에 새기고 사상선, 두뇌선의 드넓은 열매, 청년들과의 불꽃을 새치기 일으켜 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풀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혁명의 전두에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모두가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들을 결사관철함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확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연설자들은 모든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급수신대양군정을 편견단정의 성세, 방비가 되어 결사보위하여 당의 부름따라 함복도 북부피해복구건설에서 전진위부의 새로운 기적적 창조함으로 총정의 200일전투를 빛나는 승리로 결속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정병들은 핵무산론현열풍의 불도 카니슈에서 일당백현열풍의 위력을 억척같이 다져 적들이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자주적존엄과 권위를 해치지 않고 조급이라도 울려지던 단호하고도 강력한 보복의 불벼

락을 물리울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의 믿을지한 무비대, 척후대, 익속부대인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웅청년의 승리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편승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감으로써 새로운 영웅청년선화장들의 만세소리가 끊이지 이어지게 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학기술강국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차적목표로 내세우는 당의 의도된 심정에 새기고 사상선, 두뇌선의 드넓은 열매, 청년들과의 불꽃을 새치기 일으켜 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풀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혁명의 전두에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모두가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들을 결사관철함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확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연설자들은 모든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급수신대양군정을 편견단정의 성세, 방비가 되어 결사보위하여 당의 부름따라 함복도 북부피해복구건설에서 전진위부의 새로운 기적적 창조함으로 총정의 200일전투를 빛나는 승리로 결속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정병들은 핵무산론현열풍의 불도 카니슈에서 일당백현열풍의 위력을 억척같이 다져 적들이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자주적존엄과 권위를 해치지 않고 조급이라도 울려지던 단호하고도 강력한 보복의 불벼

락을 물리울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의 믿을지한 무비대, 척후대, 익속부대인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웅청년의 승리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편승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감으로써 새로운 영웅청년선화장들의 만세소리가 끊이지 이어지게 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학기술강국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차적목표로 내세우는 당의 의도된 심정에 새기고 사상선, 두뇌선의 드넓은 열매, 청년들과의 불꽃을 새치기 일으켜 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풀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혁명의 전두에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모두가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들을 결사관철함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제17차 별력불가담국가수뇌자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평양 9월 13일 조선중앙통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이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되는 제17차 북미북미국가수뇌자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13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총정의 200일전투의 승전포상을 높이 올리고 있는 안변군 천삼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총정의 200일전투의 승전포상을 높이 올리고 있는 안변군 천삼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이 13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박정남 강원도당위원회 위원장, 관계부서 일꾼들, 천삼협동농장 근로자들과 일꾼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천삼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총정의 200일전투에 모두들 당의 전투적조성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차대 제1선화호인 농업건설의 전열에서 전에는 성과없이 이룩해나가고있는 안변군 천삼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과 일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